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 후 실시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언어의 공공성에 대해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발표나 토론 같은 공식적인 담화에 참여하거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상황에서는 언어의 공공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어휘나 문장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의 공공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화자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청자가 화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휘와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휘는 베리 시그니피컨트합니다. (반응을 살피며) 조금 의아해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느린 속도로)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잘 이해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들 후자라고 하시네요.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가 이 자리에서 ‘뽕치다’ 같은 비속어나 ‘레알’ 같은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서 격식에 맞지 않는 가벼운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휘뿐 아니라 문장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저는 토론 수업에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동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들을 찾아보니, 제가 사용한 ‘-ㄴ 것 같다’와 ‘-아 보이다’가 모두 확신의 정도가 낮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싶었지만, 토론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수와 소통하는 담화에 참여하고 있으니,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현의 적절성을 어휘 차원과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상황에 적절한 표현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화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발표를 들은 여러분이 표현의 적절성에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되는 발화를 실연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③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④ 같은 내용을 거듭 질문하여 청중의 답변을 끌어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발표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하고, 발표의 화제가 ‘표현의 적절성’임을 소개해야겠어.	①
	[전개] ◦ ‘표현의 적절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예를 중심으로 설명해야겠어.	②
	◦ ‘표현의 적절성’의 개념이 변하는 양상을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 분석해야겠어.	③
	◦ 실제 경험을 예로 들며 ‘표현의 적절성’이 발표를 듣는 학생들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④
	[정리] ◦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발표를 듣는 학생들에게 ‘표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바라는 바를 언급해야겠어.	⑤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발표 잘 들었어요. 발표 내용 중,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네요.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기 위해 동사, 부사, 의존 명사, 보조 용언, 인용절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휘나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앞서 언급된 표현을 더해 확신의 정도에 변화를 준 문장들입니다. 확신의 정도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 설명해 볼까요?

㉠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분명히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학 생 : _____ [A] _____

- ① ㉠은 ㉡와 달리 보조 용언을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 ② ㉠은 ㉢와 달리 피동 접사가 있는 동사를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 ③ ㉠과 ㉣는 모두 의존 명사를 썼는데, 의존 명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 ④ ㉡와 ㉢는 인용절을 썼다는 점은 같지만, 인용절 바로 뒤의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 ⑤ ㉢와 ㉣는 모두 부사를 썼는데, 부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가 더 높아요.

[4~6] 다음은 학생회 토의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아시다시피, 지난달 후문 계단에서 학생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4건이 일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대책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여 학교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후문 계단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1: 후문을 나서서 내려가는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폭과 단너비가 좁아 보행이 불편합니다. 학생들에게 조사해 보니, 학생들 역시 단너비가 좁은 계단의 구조를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경사가 완만하고 단너비가 넓게 계단을 다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단너비가 무엇인가요?

학생 1: 계단을 측면에서 볼 때 각 디딤판의 너비입니다.

학생 2: 계단을 다시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후문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주택가입니다. 경사를 완만히 하려면 계단의 전체 길이가 지금보다 길어져야 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더구나 계단을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에는 정문만 이용해야 하므로 후문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A]

학생 3: 이왕이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눈에 잘 띄면 좋겠습니다. 토의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던 중,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미끄럼 방지 패드를 활용한다면 계단 끝이 식별되지 않아 넘어지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2: 오, 그러면 패드 부착 효과가 더 커지겠네요.

학생 4: 저는 아까 나왔던, 계단을 다시 만들자는 말씀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간상 문제로 계단 재시공이 어려워니, 현재의 난간을 보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장을 살펴보니, 난간이 낡아서 안전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1: 좋은 의견입니다.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사회자: 네, 지금까지 계단 재시공,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 난간 보수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각자 준비한 의견을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3: [가]

학생 4: 조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생각하셨네요.

4. 위 토의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의 배경과 주제를 제시하며 토의를 시작한다.
- ② 토의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며 토의를 이어 간다.
- ③ 토의자들의 발언 순서를 조정하여 발언 기회를 분배한다.
- ④ 토의 결과를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토의 참여를 독려한다.
- ⑤ 토의자에게 질문하여 발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확인한다.

5.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대안을 제시할 때 조사 내용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이 지닌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토의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 2’의 대안을 보강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공감하며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학생 1’은 ‘학생 4’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효율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6. <보기>는 ‘학생 3’이 토의를 준비하며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후문 계단 안전사고 실태 파악을 위해 정리한 표

사고 발생 일시			해당 일 일출	해당 일 일몰
연번	날짜	시간		
1	12.03.	20:40	07:30	17:19
2	12.11.	21:10	07:38	17:18
3	12.23.	18:30	07:47	17:14
4	12.27.	07:25	07:44	17:21

[자료 2] 인터넷에서 ‘조명’을 검색하여 정리한 메모

- 가로등: 통행 및 보행 안전을 위해 길가를 따라 설치.
- 센서등: 움직임 감지하여 자동으로 켜짐. 상시 조명이 필요 없는 곳에 설치.
- 잔디등: 상가거리, 광장 주변 녹지에 설치. 야간 보행 안전 및 미관을 위해 설치.

[자료 3] 조명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다가 읽게 된 신문 기사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모두 227건 접수됐다. 특히 A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 B 씨는 “A 아파트의 외부 조명으로 인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내내 집 안이 환해서 너무 힘듭니다.”라며 “A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조명이 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① 후문 주택가 주민들이 빛 공해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도를 낮추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② 후문 계단이 낡아서 주변이 낙후된 느낌이니 잔디등을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면 후문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입니다.
- ③ 등교 시간에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므로 센서등을 설치하면 안전사고를 줄이면서 이른 아침에 인근 주민에게 피해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 ④ 후문 계단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일몰부터 일출까지 켜 두면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⑤ 겨울철 어두울 때 후문 계단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니 조명을 설치하되 후문 주택가 주민들의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센서등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두 단어가 보이는 의미 관계에는 ㉠ 유의 관계(예: 셋별-금성), ㉡ 반의 관계(예: 앞-뒤), ㉢ 상하 관계(예: 학교-중학교)가 있다. 한편, ‘과일-채소’처럼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중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 단어 쌍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반의 관계를 맺지 않는 단어 쌍이 담화 맥락에서는 마치 반의 관계처럼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문-벽’은 어떤 의미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어 쌍이지만 “스마트폰, 누군가에게는 소통의 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통의 벽입니다.”와 같은 담화 맥락에서는 반의 관계처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반의 관계를 맺는 단어 쌍들이, 담화 맥락에서 함께 쓰일 때 그 대립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년-소녀’는 일반적으로는 반의 관계를 맺는 단어 쌍이지만, “우리 모두는 소년, 소녀이던 시절이 있었다.”와 같은 담화 맥락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 대립하지 않는다.

—<자 료>—

(하교 후 함께 밥을 먹기로 한 친구 사이의 대화)

승균: 오늘 엄마 생신이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 위주로 아침밥을 차려 드렸어.

현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셨겠네. 근데, 우리 이제 **밥** 먹을까?

승균: 나는 저녁은 **고기** 먹고 싶어. 엄마가 채소 좋아하셔서 **풀만** 먹었거든. **아침**, **저녁**을 두 끼나 풀만 먹고 싶진 않아.

현서: 알겠어. 그럼, 저기 앞에 있는 치킨 가게 어때? 오래 서 있어서 무릎이 아프니까 우리 가까운 데로 가자.

승균: 넌 **무릎**이 아프니? 난 **발**이 아픈데.

현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 ① ‘엄마-어머니’는 ㉠에 해당하고, 담화 맥락에서 같은 인물을 지시함으로써 대립이 사라진 경우로 볼 수 있다.
- ② ‘반찬-밥’은 ㉡에 해당하고, 담화 맥락에서 두 단어가 모두 ‘주식’이라는 의미로 쓰여 ‘부식’과 ‘주식’의 대립이 사라진 경우로 볼 수 있다.
- ③ ‘고기-풀’은 ㉣에 해당하고, 담화 맥락에서 ‘육류로 만든 음식’과 ‘육류 없이 채소로 만든 음식’의 의미로 쓰여 마치 반의 관계처럼 대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④ ‘아침-저녁’은 ㉢에 해당하고, 담화 맥락에서 ‘시간’의 의미로 쓰여 ‘식사’의 의미가 사라짐으로써 마치 반의 관계처럼 대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⑤ ‘무릎-발’은 ㉢에 해당하고, 담화 맥락에서 ‘종아리’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의미로 쓰여 마치 반의 관계처럼 대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문장 성분과,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지 않은 문장 성분이 모두 있었고, 서술어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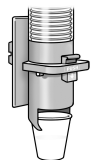
- ㉠ 우리^는(우리+^는) 다 부텃(부텃+^는) 아^들 곧호니
[우리는 다 부처의 아들과 같으니]
- ㉡ 그^딛(그^딛+^는) 아바니^미(아바^님+^이) 잇^는닛가
[당신의 아버님이 있습니까?]
- ㉢ 나^랏(나^라+^는) 말^쑤미(말^쑤+^이) 中國^에(中國+^에)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中國)과 달라]

- ① ㉠의 ‘부텃 아들’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군.
- ② ㉡의 ‘그딛 아바니미’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것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군.
- ③ ㉢의 ‘中國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군.
- ④ ㉠의 ‘우리^는’과 ㉡의 ‘그^딛’은 체언에 조사가 붙은 것으로, 문장 성분이 서로 같군.
- ⑤ ㉠의 ‘부텃’과 ㉢의 ‘나^랏’은 체언에 조사가 붙은 것으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새말을 만들 때는 어근, 접사, 어미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다. 가령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사람에게 바로 오는 것을 막는 도구’를 가리키기 위한 새말로 ‘추운바람막개’를 만들었고, 이 새말의 직접 구성 성분이 ‘추운바람’과 ‘막개’로 분석된다고 하자. 이때 ‘추운바람’과 ‘막개’는 각각 어미 ‘-[㉠]’과 접사 ‘-[㉡]’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아래의 ㉠은 접미 ‘추운바람막개’와 같다.

대상	용도	새말
	종이컵을 보관하면서 하나씩 뽑아 쓸 수 있게 하는 통	㉠ 긴종이컵 ^통 (긴-종이컵 ^통) ㉡ 새컵 ^{뽑이} 통(새컵 ^{뽑이} - ^통) ㉢ 컵 ^{뽑는} 긴 ^통 (컵 ^{뽑는} -긴 ^통)

(㉠~㉢ 옆의 괄호 안의 붙임표(-)는 직접 구성 성분의 경계임.)

- ① ㉠은 접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 ② ㉡는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
- ③ ㉢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
- ④ ㉠과 ㉡는 모두,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
- ⑤ ㉡와 ㉢는 모두, 접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1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표준 발음법에는 교체, 탈락, 축약 등과 같은 음운 변동과 관련된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제9항, 제23항에서는 교체가, 제11항에서는 탈락이, 제12항에서는 축약이 일어나는 환경과 변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 ㉡에 나타난 음운 변동의 유형을 [표준 발음법]에서 확인해 보자.

[자료]

내일부터 이곳의 ㉠ 걸흠하고[거트카고] 모래층을 파낼 거야.
그 일에는 네가 해야 할 ㉡ 몫도[목또] 있어.

[표준 발음법]

- 제9항 받침 ‘ㄱ, ㅋ, ㆁ,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ㅍ]으로 발음한다. …………… ㉠
- 제11항 겹받침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 ㉡
-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 1. ‘ㅎ(ㄴ, ㅎ)’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 [붙임 1] 받침 ‘ㄱ(ㄴ), ㄷ, ㅌ(ㅁ), ㅌ(ㄴ)’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ㅌ, ㅎ]으로 발음한다. …………… ㉢
 -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ㄴ, ㄷ, ㅌ, ㅍ’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ㅍ), ㄷ(ㄴ, ㅁ, ㅂ, ㅌ, ㅍ), ㅌ(ㄴ, ㅁ, ㅂ, ㅌ,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ㄴ,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 ① ㉠에는 ㉠에서 확인되는 환경에서의 교체가 일어났군.
- ② ㉠에는 ㉢에서 확인되는 환경에서의 축약이 일어났군.
- ③ ㉠에는 ㉣에서 확인되는 환경에서의 축약이 일어났군.
- ④ ㉡에는 ㉡에서 확인되는 환경에서의 탈락이 일어났군.
- ⑤ ㉡에는 ㉤에서 확인되는 환경에서의 교체가 일어났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세기 들어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미학, 영화 창작 방식, 관객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를 가공하는 ‘디지털 후반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다.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되었다. ㉠ 지가 베르토프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영화-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산적인 전자 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작업 과정에서 변형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붓’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인식하는 ‘트루 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이다. 따라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1.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름 영화와 디지털 영화는 이미지의 실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② 디지털 영화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초래했다.
- ③ ‘트루 라이즈’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관객이 사실적인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 ④ 영화가 기록이자 증언이라는 주장은 영화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 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며 관객은 이 정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받아들인다.

12. ㉠~㉢의 관점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회화에 대한 영화의 우위를, ㉡은 영화에 대한 회화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군.
- ② ㉠은 영화의 현실 재현 능력을, ㉢은 영화를 보는 관객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 ③ ㉡은 카메라가 대상을 포착하는 역량을, ㉢은 영화 이미지가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 ④ ㉠과 ㉢은 모두 영화에서 ‘지각적 리얼리즘’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 ⑤ ㉡과 ㉢은 모두 ㉠의 리얼리즘 개념이 디지털 영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겠군.

13. 다음은 영화감독 A의 인터뷰이다. 밑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 ㉡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0년 0월 00일 □□일보

기자 : 감독님께서 ㉠ 이전 영화들에서 필름 작업만을 고집하다가 ㉡ 이번 작품에는 디지털 기술도 사용하셨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A :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 세계를 표현한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만, 시각적 쾌감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를 원했고,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제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한도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관객이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기쁩니다.

- ① A가 필름 작업을 고집했던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에서 현실의 역동적 양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② A가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자신의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현실의 총체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③ A가 자신의 영화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붓’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④ A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최소화하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눈’의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 ⑤ A가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시각적 리얼리즘’을 의도하고 연출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때 정보의 ‘객체’는 접근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 자원을, 정보의 ‘주체’는 접근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접근제어’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정보 주체만이 정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이다.

접근제어에서는 보안등급에 따라 접근 권한이 관리되는데, 이때 ‘보안등급’은 정보 주체와 객체에 부여된 중요도 또는 신뢰도를 나타낸다. 인터넷 카페에서 등급에 따라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주는 것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접근제어에서 관리하는 권한은 접근제어행렬, 접근제어목록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접근제어행렬’은 정보 주체를 행으로, 정보 객체를 열로 구성한 테이블로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권한은 해당 주체의 행과 해당 객체의 열이 만나는 셀에 기록된다. ‘접근제어목록’은 특정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주체가 나열된 목록이다.

접근제어에는 임의적 접근제어, 강제적 접근제어 등이 있다. ㉠ ‘임의적 접근제어’에서는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해당 객체에 대한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또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역시 해당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결정한다. 따라서 임의적 접근제어에서 접근 권한을 표현할 때는 접근제어목록이 주로 사용된다. 임의적 접근제어는 구현이 쉽고 권한 관리가 유연한 방식이지만,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서 접근 권한의 일률적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강제적 접근제어’에서는 보안등급 부여와 접근 권한의 관리가 중앙화된 방식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제적 접근제어에는 벨라파둘라 모델과 비바 모델 등이 있는데, ㉢ 벨라파둘라 모델은 기밀 정보의 유출 방지에 적합하고, 비바 모델은 정보의 신뢰도 유지에 적합하다.

정보 객체가 문서이고 정보 주체가 객체에 대한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벨라파둘라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를 읽는 것이 금지되지만,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읽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쓰는 것은 금지되지만,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에 쓰는 것은 허용된다. 비바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 권한이 없지만,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가 가능하다. 또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이 없지만,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를 읽는 것이 허용된다.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포함된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비바 모델에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다.

1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접근제어행렬은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테이블이다.
- ② 임의적 접근제어의 접근 권한 표현에는 접근제어목록이 주로 사용된다.
- ③ 접근은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접근제어에서는 정보 주체와 정보 객체에 부여된 중요도나 신뢰도에 따라 접근 권한이 관리된다.
- ⑤ 접근제어목록은 특정 정보 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객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달리 ㉡은 중앙화된 방식으로 접근 권한을 통제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권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② ㉠과 달리 ㉡은 정보 객체의 소유자 외의 정보 주체가 해당 객체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 ③ ㉡과 달리 ㉠은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때문에 권한 관리가 유연한 방식이다.
- ④ ㉠과 ㉡은 모두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 ⑤ ㉠과 ㉡은 모두 접근제어행렬을 이용한 접근 권한 표현이 가능한 방식이다.

1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객체의 정보가, 같은 등급의 정보 주체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정보 주체와 정보 객체의 보안등급이 중앙화된 방식으로 관리 되기 때문이다.
- ③ 정보 주체가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 객체에 쓰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 ④ 정보 주체가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정보 객체에 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⑤ 정보 주체와 정보 객체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테이블을 이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비바 모델 접근제어를 사용하는 ○○ 회사의 접근 제어행렬이다. 이 회사에는 갑, 을, 병이라는 정보 주체와 A, B, C라는 정보 객체가 있다. 이 회사는 모든 정보 주체 및 객체를 1등급, 2등급, 3등급의 보안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테이블에서 r은 읽기 권한을, w는 쓰기 권한을 의미한다.

주체 \ 객체	A	B	C
갑	[]	rw	r
을	rw	w	r
병	w	w	rw

- ① 모든 주체가 B에 대한 쓰기 권한을, C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갑은 A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겠군.
- ② 을은 병에 비해 읽기 권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안 등급은 을이 병보다 높겠군.
- ③ 을은 A에 대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을과 A의 보안등급은 같겠군.
- ④ 을은 C에 대한 읽기 권한이 있으므로 C보다 보안등급이 낮은 을에게 C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겠군.
- ⑤ 병이 A와 B에 대한 읽기 권한이 없는 것은 병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겠군.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 ‘사전억제의 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영역의 심의는 법적인 사후심이나 자율적인 사전 심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요구 받았던 본인확인제를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 본인 확인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장점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법리’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사적 인물이나 사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 법리는 법원의 명예훼손 재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만약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그 기사가 허위이며 중대하고 ㉡ 현저한 침해가 계속 되는 경우 기사 삭제의 청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때 기사의 허위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나 무죄 확정판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 인용될 수 있다. ㉤ 방영금지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 부인했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절차를, (나)는 인격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양상을, (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 배경을, (나)는 인격권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상반되는 의견을, (나)는 인격권에 관한 절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19.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업적 광고에 대한 심의는 사후에만 허용된다.
- ②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 ③ 공적 인물에 대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대립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
- ④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법리’가 채택되었다.
- ⑤ 영상물에 대한 심의가 검열이라고 판단된 것은 심의 시기와 관련 없이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해 봅시다.

질문 1

언론의 보도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법률에 규정된 기사삭제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①

•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닌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질문 2

인터넷 댓글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댓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질문 3

보도 기사의 허위성이 문제가 될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기사의 허위성 여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⑤

21. ㉠을 바탕으로 ㉤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방송으로 인해 훼손된 인격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방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③ 인격권을 손상할 것이 명백한 방송이라면, 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④ 현저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 ⑤ 허위 사실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22. ㉠~㉥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근거를 갖추어 피해 사실을 ‘밝혀 설명하고’라는 의미이다.
- ② ㉡: 게시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착오가 없이’라는 의미이다.
- ③ ㉢: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 ④ ㉣: 신청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이라는 의미이다.
- ⑤ ㉤: 검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다.

23.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신문사는 공적 인물인 A가 불법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일반인 B는 포털 게시판에, 보도된 의혹 외에 A가 추가로 부당 이익을 얻은 적이 있다는 글을 익명으로 올렸다. 사건이 커지자 ‘을’ 방송사는 A의 부당 이익 수취에 대한 의혹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1주일 후 방영하겠다고 방송에서 예고했다. A는 방영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①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면, A는 ‘갑’ 신문사의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겠군.
- ② A의 혐의가 무죄로 종결되고 A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을’ 방송사에 해당 사실을 보도하라고 판결하겠군.
- ③ B가 게시한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 아니며 A의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포털의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을 삭제해야겠군.
- ④ A가 명예훼손 책임을 ‘갑’ 신문사에게 묻는다면, 법원은 A가 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의 책임을 완화하겠군.
- ⑤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을’ 방송사가 방송하려는 내용이 진실이거나 A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겠군.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게 되는 만족과 기회비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기회비용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구한다.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공연 관람을 가자고 한다. 만약 공연 관람을 선택한다면 공연 관람료가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이 공연 관람으로 포기한 것의 가치에 해당한다. 기회비용을 구할 때, 공연 관람료처럼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만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도 있다. 바로 매몰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의사 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가령 공연이 시시하여 관람을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경우 관람료가 아까워 계속 관람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므로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 가져올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나)

정책 영역에서는 정보가 충분한 경우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가치가 충돌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 정책 상황으로 인해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때 딜레마란 ‘두 개의 배타적 대안이 존재하고, 두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상충적이며, 각 대안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딜레마와 유사해 보이지만 딜레마와는 구별되는 상황이 있다.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이나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 등이다. 불확실성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해소할 수 있고 모호성은 정책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딜레마로 보기 어렵다.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에 관한 논의의 함의는 대안을 평가할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딜레마에서의 의사 결정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우리 지역의 ○○ 부지에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우선 지역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들 수 있다. 시설을 유치할 경우 시설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기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민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지하에 구축될 하수 처리 시설의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계획 전문가 이□□에 따르면 여가와 휴식 공간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그렇지 않은 지역민보다 정서적 만족도가 1.5배가량 높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하수 처리 시설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은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는 물론, 부지의 다른 가치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의사 결정 상황에서 기회비용이란 무엇일까? ①
-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②

(나)와 관련하여,

-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딜레마란 무엇일까? ③
- 딜레마와 유사하지만 딜레마가 아닌 상황과 딜레마의 차이는 무엇일까? ④
-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매물 비용의 개념에 주목하고, 의사 결정 시 매물 비용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기회비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가치도 고려해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가)에서 기회비용의 효용성에 주목하고, 기회비용이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과 실제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딜레마에서의 선택에 가치가 개입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딜레마에서의 선택에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가 충분할수록 의사 결정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논증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논증 요소는 주장과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관한 주관적 생각인 이유,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있다.

- ①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쟁점에서 찬성 입장을 주장으로 제시한다.
- ②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논쟁이 첨예하여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이유로 제시한다.
- ③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주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 ④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다.
- ⑤ 고려할 수 있는 해당 부지의 모든 가치를 기회비용에 포함하였다는 내용을 반박으로 제시한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더라도 대안을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절차적 합리성이 제안될 수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는 내용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 학회 논문 자료 -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대안의 가치를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면 대안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정보가 충분하면 대안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배타적 대안이 상충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회비용 산출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딜레마에서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형식적 절차에 따라 만족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가치 충돌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28~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소리 요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록한 [체험 일지]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교지에 실으려 함.

○ **초고**
바쁜 일상에 몸도 마음도 지쳐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소리 요법 체험 프로그램이 방학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 요법이 마음에 휴식을 준다는 학교 게시판의 소개 내용에 이끌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체험 프로그램은 소리 요법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소리 요법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리 혹은 일정한 주파수들로 구성된 소리를 이용해 정신적 안정, 집중력 향상을 돕는다고 한다. 소리만으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펍 흥미로웠다.

다양한 종류의 소리 요법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중 소리 그릇 요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소리 그릇 요법 체험은 나무 막대를 사용하여 금속 재질의 소리 그릇을 두드리거나 문질러서 낸 소리를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편히 누워서 눈을 감고

소리 그릇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 소리에 익숙해질 때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소리 그릇을 몸 위에 올려 보았다. 소리 그릇의 울림이 온몸으로 전해져 몸과 마음이 천천히 이완되었다.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 주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참 좋았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체험은 백색 소음 요법이다. 백색 소음은 폭포, 파도 등과 같은 자연이나 선풍기, 공기 청정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여러 색의 빛이 합쳐져 투명한 빛, 백색광이 되듯 여러 주파수 범위의 소리가 합쳐져 귀에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백색 소음이라고 한다. 백색 소음 요법을 체험하기 위해 공기 청정기를 켜 놓고 독서를 했는데 집중이 더 잘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유에 대해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색 소음 요법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를 활용하고, 소리 그릇 요법과는 달리 별도의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일상에서 소리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데, 지나친 소음은 하는 일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소리 요법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방학에도 학교에서 운영된다고 하니,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28. 다음은 [체험 일지]의 일부이다. ㉠~㉣이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소리 요법 체험 일지 >

1월 10일

- 지친 나를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 ㉠

1월 17일

- 소리 요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
- 소리 그릇을 사용하여 소리 그릇 요법을 체험함.
- 소리 그릇을 몸 위에 올려 보았음. ㉢
- ↳ 울림이 전해져 마음이 평온해졌다.

1월 18일

- 백색 소음 요법을 체험함. ㉣
- ↳ 근데 왜 ‘백색 소음’인 걸까? 조사해 보아야지.
- 공기 청정기 소리를 들으며 독서를 함. ㉤
- ↳ 집중이 더 잘되던데 왜 그런 걸까?

- ① ㉠을 반영하여, 소리 요법 체험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제시하였다.
- ② ㉡을 반영하여, 소리 요법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 ③ ㉢을 반영하여, 소리 그릇의 울림이 몸에 전해졌을 때의 느낌을 구체화하였다.
- ④ ㉣을 반영하여, 백색 소음이라는 용어에 대해 조사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 ⑤ ㉤을 반영하여, 백색 소음과 집중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언급하였다.

29.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문단에서는 소리 요법 체험의 유의점을 인과 관계에 따라 서술하였다.
- ② 3문단에서는 소리를 내는 방법을 중심으로 소리 그릇 요법의 유래를 서술하였다.
- ③ 3문단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리 요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 ④ 4문단에서는 다른 요법과 견주어 백색 소음 요법의 장점을 서술하였다.
- ⑤ 4문단에서는 백색 소음 요법의 체험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

30.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집부장: 초고 잘 읽었어. 편집부에서 함께 검토해 봤는데, 마지막 문단을 고쳐 써 줄 수 있을까?

편집부장: ㉠ 내용을 삭제하고, 소리 요법 ㉡ 추가하면 좋겠어.

응. 마지막 문단만 수정해서 보낼게.

일상에서 소리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데, 소리 요법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통해 마음이 평온해졌고,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다음 방학에도 학교에서 소리 요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수정했는데 어때?

편집부장: 훨씬 좋네! 고마워.

- | ㉠ | ㉡ |
|---------------|------------|
| ①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체험의 효과를 |
| ②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 체험을 위한 정보를 |
| ③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 체험의 전망을 |
| ④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 체험의 효과를 |
| ⑤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 체험을 위한 정보를 |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 남자가 양창곡의 뜻을 보고자 하여 선비로 남장해 묻길,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아나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면,
이 또한 ‘지기’라 할 수 있으리오?”

양 공자가 웃으며,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하여야 종자기가 있거늘, 사람이 지조를
닦아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밖으로 드러내면,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르듯,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으로 서로 구하리니, 어찌 모를 리가 있으리오?”

선비가 말하길,
“세간에 신의 없는 지 오래되어 곤궁한 처지였을 때 사권
정을 부기한 후 잇는 자들이 흔히 있더라. 부귀와 궁달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를 볼 수 있으리오?”

양 공자가 웃으며,
“옛말에 이르되 ‘가난하고 천할 때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
서는 안 된다.’ 하니, 부귀와 궁달에 따라 친소를 달리하면
이는 경박한 일이라. 어찌 이 때문에 세상을 의심하리오?”

선비가 웃으며,
“형은 충직한 사람이다. 저는 본디 지조가 없는 사람이라.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선비가 친구를 사귀에, 그 명망을 닦고
예절을 지켜 도리에 부합해 사귀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
재주를 드러내면서 형편에 따른 방도로써 사귀을 하는 사람도
있소.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양 공자가 답하길,
“사람의 나아가고 물러남을 어찌 가벼이 논하리오? 성인에게도
공명정대한 원칙과 형편에 따른 방도가 있나니, 군신과 봉우
사이에 마음 한구석을 비취 볼 따름이라. 나 역시 과거에
응시하려는 선비로, 덕을 닦아 이름을 드날리지 못하고 문장
찌꺼기로 망령되이 임금의 은혜를 얻고자 하니, 이 어찌
규중 처녀가 얼굴을 가리고 스스로 짝을 구함과 다르리오?
이로써 보건대 나아가고 물러남이 정대하고 깨끗하여 옛사람
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몇이나 있는고?”

선비가 미소하고 몸을 일으키며,
“밤이 깊었고 여행 중에 잠을 못 자는 것이 몸을 보살피는
도리가 아니니, 무궁무진한 정답은 내일을 기약할지라.”

양 공자가 차마 떠나지 못해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홍 남자는 양창곡과 이별한 후 오랑캐 장수가
되었다가, 명나라 원수가 된 양창곡과 다시 만나 그의 군영에서 사마라는
직책을 받고 축융 왕의 항복을 받아 낸다.

일지련이 부친 축융 왕을 모시고 막사로 돌아가 가만히 생각
하길,

‘내가 아무리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 해도 홍 장군은 분명
남자가 아닐지라. 만약 여자라면 누구를 위해 만 리 밖에서
종군했으리오? 양 원수의 용모와 풍채를 보건대 비범한 장수요,
또 홍 장군의 기색과 언사를 살피건대 자못 조심해 무례한
뜻을 드러내지 않으나 은근한 정을 띤 듯하니, 이 어찌 지기를

따르려고 남자로 변복해 종군한 것이 아니리오?’

또 의심하길,

‘여자의 질투는 세상 부녀자의 일반적인 정이라. 남자가 아니
라면 홍 장군은 어째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고?’

끝내 깨닫지 못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에 조급한 심정을
참지 못해 홍 사마의 본색을 알고자 조용히 그의 막사로 가거늘,
마침 홍 사마가 고요히 홀로 앉아 있더라. 일지련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길,

“제가 장군께서 살려 주신 은덕을 입어 휘하에서 모시며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생각건대 제 처지가 남자와 다르고
군중에 여자가 있는 것은 예로부터 꺼리는 바라, 저의 부친이
이미 군중에 계시니 저는 마땅히 본국으로 돌아가 행동이
어그러짐을 면할까 하나이다.”

홍 사마가 웃으며,

“남자의 말이 지나치도다. 옛날 목란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만 리 밖에서 종군했으나 일찍이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거늘, 남자만 어찌 이에 구애되리오?”

일지련이 눈길을 흘려 홍 사마를 보고 웃으며,

“제가 오랑캐 땅에서 자라 예법을 배우지 못했으나,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은 성인의 밝은
가르침이라, 만약 군중에 처한즉 어찌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리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그러므로 목란이
충효는 극진하나 규방의 아녀자가 지켜야 하는 단정한 행실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나이다.”

홍 사마가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일지련을 보며 양 볼에
홍조 만발하여 오랫동안 말이 없더니 자신의 본색을 알고자
함인 줄 짐작하고 자기 행장을 수습하여 길게 탄식해,

“세상에 한결같이 단정해 규방 예절을 어기지 않은 여자가
몇이나 되리오? 혹은 환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어기는
자도 있고, 혹은 지기를 좇아 예절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어찌 한 가지로 논할 수 있으리오?”

일지련이 사례하고 돌아와 마음속으로 웃으며,

‘나의 안목이 과연 틀리지 않았도다. 홍 사마가 어떠한 여자
로서 종군한 것인지 모르나, 그의 말과 의로운 기상을 보건대
분명히 내 평생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맹세코 변화한
명나라를 구경하리라.’ 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 남자는 양 공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점에 서운함을 느꼈다.
- ② 양 공자는 선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선비로부터 다시 만날 약속을 받아 냈다.
- ③ 일지련은 홍 장군이 양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
- ④ 일지련은 양 원수의 비범함을 눈치채고 그의 휘하에 장수로 들어가하고자 하였다.
- ⑤ 홍 사마는 일지련의 말을 듣고 조급한 성정을 꾸짖기 위해 오랫동안 침묵하였다.

32.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목란의 고사에 나타난 옛날의 일과 일지련의 상황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사례를 들어 여인이 군중에 머무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지련에게 알려 주고 있다.
- ③ [A]에서는 군중에 머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일지련의 걱정을 위로하고, [B]에서는 군중에 머무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일지련의 계획을 실현 불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만류하고, [B]에서는 그 계획을 시기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만류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여인이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한 일지련의 의견이 과도하다고 평하고, [B]에서는 당위적 윤리 규범을 내세우는 일지련의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루몽」에서는 다양한 지기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지기란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물들은 이상적인 인물과의 지기 관계를 추구한다. 인물들은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상대의 의중을 탐색하는 대화를 통해 성별과 신분, 처지에서 비롯된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관계를 모색한다. 이러한 지기 관계의 양상을 통해 유교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적 욕망을 인정하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① 흥 남자가 ‘선비로 남장해’ 양 공자의 뜻을 확인하는 데서, 지기 관계 형성에서 성별이 사회적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양 공자가 지기는 ‘같은 소리로 서로 응하며 같은 기운으로 서로 구하리’라고 하는 데서, 지기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라고 여김을 알 수 있군.
- ③ 일지련이 흥 사마가 ‘어째서 이처럼’ 자신을 아끼는지 알고자 하면서도 예법에 대해 문답하는 데서, 지기 관계 형성을 위한 탐색 과정에서 인물이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냄을 알 수 있군.
- ④ 흥 남자가 양 공자에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에 대해 묻는 것과 일지련이 흥 사마의 ‘의로운 기상’을 믿는 데서, 인물들이 지기 관계에서 상대방의 도덕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군.
- ⑤ 양 공자가 덕이 모자란데도 ‘임금의 은혜’를 얻겠다는 것과 일지련이 ‘명나라’ 구경을 결심하는 데서, 지기 관계에서 유교적 질서와 개인적 욕망의 추구가 동시에 인정됨을 알 수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대는 속객(俗客)이라 내 이름 어이 알까
오늘날 내 이름을 그대에게 이르려니
비늘 가진 동물 중에 머리 있는 용이로세
조선이 천명을 받아 성현이 나셨도다
삼한을 어루만져 한양에 도읍하니
인물이 변성하고 인가(人家)가 가득하다
아, 옥황상제 건천문을 여시고
중국 땅을 바라보고 하토를 굽어보시어
한 폭 조서(詔書)를 ㉠ 수국(水國)에 전하시되
동문 밖 십 리 땅은 청룡이 네가 지키고
남문 밖 십 리 땅은 적룡이 네가 지키고
서문 밖 십 리 땅은 백룡이 네가 지키고
북문 밖 십 리 땅은 흑룡이 네가 지키고
왕성 안 십 리 땅은 황룡이 네가 지키어
우물의 물을 뿜어 백성을 이롭게 하라
우리는 백룡이라 서쪽을 주관하여
반송방 노침정계* ㉡ 팔각정 내린 맥에
자리를 점지하여 삼백 년 걸쳐 있어
꼬리를 한 번 치면 감천이 솟아나니
이러하여 세상 사람 이르기를 ㉢ 초리우물
그러나 수근(水根)은 유한하고 먹을 이도 많구나
아침이야 저녁이야 새벽이야 밤중이야
재상의 집 선비의 집 무반의 집 한량의 집
국숫집 팔죽집 떡집이며 옛집이라
통이로세 물동이로세 장군이야 향아리아
긴거니 푸거니 이 우물에 모여드니
두레박도 빠지고 쪽박도 깨지고
아이구야 사람 죽네 싸움으로 시끌하고
위그적위그적 휩쓸려 뽀비는 게 더욱 심해
쌀을 씻고 팔을 간들 물 없이 밥이 되며
미역과 쥔 다시마는 바리바리 쌓여 있고
채소와 대하 꾸러미 아무리 쌓였던들
이 물이 없게 되면 국이 어이 되겠는가
서문 밖 천만 집에 ㉣ 물싸움 심하더니
그대는 슬기로워 여인 중에 호걸이라
가만히 생각하니 새 물 어이 못 파리오
오른손에 자를 들고 뒤뜰로 들어가서
지맥을 헤아리고 사방을 둘러보아
여중에게 분부하되 이곳을 깊이 파라
정성이 극진하니 내 마음 감동하여
넓은 바다에 쌓인 물을 머금어 뽀어내니
그대네 북창 아래 ㉤ 감로수가 절로 난다

[A]

[B]

[C]

[D]

[E]

- 이운영, 「착정가」 -

* 반송방 노침정계: 한양 서대문 밖에 있던 지명.

(나)

‘풍속 중에 청명일에 우물을 쳐낸다[俗以清明日淘井]’라는 글이 있어, 운서(韻書)에서 ‘도(淘)’ 자의 의미를 찾아봤지만 없었다. ‘씻어서 깨끗이 한다’라는 뜻인 듯했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의문이 남았지만 그냥 내버려두었다.

바닷가에 와서 거처를 세 번 옮겼다. ... (중략) ... 그곳 땅이 본래 낮아 습한데 내가 거처한 마지막 집은 더욱 심했다. 다른 집보다 좋은 점은 우물이 있는 것이었다. 우물은 울안 동남쪽에 있었는데, 지세가 낮은 중에도 낮았다. 우물 곁 연못에 부들과 피가 자랐고, 그 옆 마구간에서 소와 말을 길렀다. **실로 모두가 꺼리는 것이 모여 있었다.** 집을 옮기자마자 종들에게 그릇을 도르래에 묶어 물을 길게 하여 우물을 쳐냈다. 마침 겨울이라 힘을 적게 쓰고도 효과는 컸다. 봄이 지나고 또 우물을 쳐냈는데, 그릇이 우물 안 물에 닿으니 그 깊이가 거의 두 길이었다. 그러나 **깨끗이 쳐내도 물은 맑아지지 않고 쳐내기 전과 같았다.** 이것이 어찌 물의 성질 때문이라? 물의 맑고 탁함과 맑고 적음은 땅의 높낮이와 춥고 더움에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래도 소동파가 새집을 지으며 사십 척이나 파고서야 물을 얻은 일보다는 나았다.

사람에게도 어찌 본성이 없겠는가? 기질에 얽매이고 욕망에 빠질 뿐이니, 또한 이 우물이 낮은 곳에 있는 것과 같다. 맑고 쾌활한 본성은 비록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나, 맑게 다스리는 노력 또한 현명한 스승과 어진 벗이 이끌어 주고 도와주는 것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성현이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고, 슬기로운 이가 성인이 된다.”라고 했듯이 생각하기를 우물 쳐내듯 하면, 처음에는 흐린 물이 있겠지만 **오래도록 끌어 올리면 차츰 맑은 물이 나오는 법이다.** 사람의 생각도 처음에는 혼탁하지만 오래 할수록 명쾌해진다. 이 우물도 비록 처음에는 흐린 물이 나오더라도 오래도록 쳐내면 맑은 물이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또한 이는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과 같으니, 생각하고 생각하면 귀신이라도 통하게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오늘 우물 쳐낸 일을 보고, 생각을 지극히 해서 **성인이 되는 노력을** 깨달았다. 이에 노비에게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려 마시게 하고, 항상 노력하고 경계하는 뜻을 마음에 새겨 응당 청명일을 기다려 다시 우물을 쳐내고자 한다.

- 박장원, 「치정설」 -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대상의 정도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대구 표현을 활용하여 긴장감이 강해지는 양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35.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옥황상제의 조서라는 형식을 빌려 우물에도 백성에 대한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B]: 우물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여 우물을 독점하려는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
- ③ [C]: 식생활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여성의 주체적인 행위를 묘사하여 새로운 우물을 찾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신이한 힘이라는 환상적 요소를 도입하여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6. ㉠~㉥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근원이 ㉠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여 우물이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의 작명 유래를 설명하여 우물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위압감을 해소하고 있다.
- ③ ㉢에 마을 사람들이 복적이는 현상으로 인해 ㉢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과 ㉤의 자리를 찾는 데에 마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 ⑤ ㉥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결과물인 ㉥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37.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수업 시간에 「치정설」을 읽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문, 경험, 사유, 의지’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글쓴이는 과거에 ㉠ 한자 ‘도(淘)’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시간이 지나고 글쓴이는 표층적 의미의 ‘도(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 맑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쳐낸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물물이 깨끗해지지 않았던 경험을 한 글쓴이는 ㉢ 인간의 심성을 맑게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도(淘)’의 또 다른 의미라고 사유한다. 우물물을 쳐내는 일처럼 ㉣ 주변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혼자 끊임없이 생각해야 슬기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우물물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도(淘)’의 또 다른 의미를 도출한 글쓴이는 ㉤ 앞으로 ‘도(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 사대부가 겪은 결핍의 상황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재구성된 일상은 대상을 재현하고 작가의 의식을 투영한다. (가)는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초현실적 존재를 화자로 설정하여 일상을 묘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작가의 참신한 발상을 보여 준다. (나)는 개인의 수양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유배 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작가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그대’에게 ‘내 이름’을 ‘용이로세’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 가는 설정에서 초현실적 존재의 입장으로 일상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을 엿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물에 ‘실로 모두가 꺼리는 것이 모여 있’다고 주목한 데서 공간적 여건으로 인해 개인의 수양이 가로막힐 수 있음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우물을 ‘깨끗이 쳐’내면서 ‘오래도록 끌어 올리’는 행위를 ‘성인이 되는 노력’에 빚댄 데서 작가가 유배 중의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에서 ‘수근은 유한하고 먹을 이도 많’다는 것과 (나)에서 우물이 ‘쳐내기 전과 같았다’는 것에서 작가가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결핍의 양상을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 ‘인물이 변성하고 인가가 가득하다’라고 한 데서 공동체의 변영에 대한, (나)에서 ‘물의 성질’과 ‘사람’의 ‘본성’을 연결한 데서 개인의 성찰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엿볼 수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더위가 짙 무렵이었다. B 공단 성장비료 석교공장의 노무과장이 장정 셋을 거느리고 집에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종옥이가 시장에 나가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어떤 위인인가 상판 좀 봅시다.” 힘꼴깨나 써 보이는 한 장정이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 “내 아들놈인데 다, 당신네는 누, 누구요?” 기세에 눌려 내 목소리가 더 더듬거렸다.

㉢ “그렇담 마빡 새파란 놈이겠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장정이 욕박질렀다. “아들은 집에 없소. 무, 무슨 일인데 이리요?”

“그 자식 당장 작살낼 테야. 암모니아 가스가 아니라 진짜 동물을 아가리에 퍼 넣어야 정신 차릴 개새끼!” 또 다른 장정이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렸다.

㉣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만,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마흔쯤 된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말했다.

“마루에라도 앉아요.” 노무과장을 상대로 내가 말했다. “병국이를 차, 찾자면 힘들겠네요. 늘 자정쯤 돌아오니, 난들 그놈 행선지를 모르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노무과장이 병국이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 “선생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요로에 진정설 냈습니다. 여기 시 보건과에서 접수한 진정서 사본을 보십시오.”

마루에 걸터앉은 노무과장이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방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어릿어릿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성장비료 석교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면 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근본적 개선책이 전무함이 입증되었다.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해, 가스가 폐수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 나가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의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샀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 주기로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 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고의로 밸브를 틀어 야밤에 가스를 배출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정신병자 놈이 쓴 낙서는 더 읽을 필요가 없소.” 장정이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물었다.

“분명합니다. 뒷조사해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더군요. 6월에는 풍천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풍천화학도 야음에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배출시켜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새 3백여 마리와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했단가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말입니다.” 노무과장이 ‘새나 물고기’란 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소득 1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선생도 잘 알지요?” 했다.

“사람이 아닌, 한갓 새와 물고기가 죽었다구 진정을 내? ㉥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에는 아예 뿌릴 뽀아야 해!” 한 장정이 주먹을 내두르며 소리쳤다.

(중략)

“요즘 제 판에는 조류와 공해 문제를 여,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시,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만한 식견이 있음에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그 일이 정당해도 사전에 부대의 양해를 구해야지요.”

“야영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 월경했겠쥬. 부대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내보내 주시면 아비 된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윤 소령이 당번병을 불러 차를 내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1968년 11월 울진·삼척 지구의 무장 공비 출현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예로 들었다.

“……야음을 틈타 쾌속정을 이용해서 동해안 따라 남하했던 겁니다.” 아울러 국내 유수의 공업 단지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실전이 없달 뿐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국민이 평안을 원한다면, 그 평안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도 경각심을 늦출 수 없어요. 국민 복지의 향상과 제반 산업의 발전도 **안보의 확립**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A] 차를 마시고 나자 소령은 당번병에게, 김병국 군을 데려 오라고 말했다. 한참 뒤, 아들이 중위와 함께 파견 대장실로 왔다. 쑥대머리에 뺨이 붉은 피땀이 흘렀다. 아들의 얼굴이 중병 든 환자 꼴이었다. 점퍼와 겹쳐 바지도 땀투성이여서 하수도 공사라도 하다 나온 듯했다. 꺼진 눈자위에 번들거리는 눈만이 살아, 나를 보았다.

“넌 도대체 어, 어떻게 돼먹은 놈인가!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는 해안 일대에 모, 못 다니는 줄 알면서.” 내가 노기를 띠며 말했다.

“본의는 아니었어요. 사나흘 사이에 동진강 하구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이유를 좀 캐내 보려던 게…….” 병국이는 머리를 떨구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인물의 판단을 그 판단에 대한 논평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시간 표지를 통해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며 인물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 ⑤ 여러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며 사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 말투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더 심해지게 한 말이다.
- ② ㉢은 ㉠에 담긴 정보를 추측의 단서로 활용하면서도 ‘나’의 질문은 무시하는 말이다.
- ③ ㉤은 ㉢으로 인해 고조되는 상황의 긴장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는 말이다.
- ④ ㉤은 ㉢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행적에 대해 존중의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다.
- ⑤ ㉤은 ㉠에서 드러나는 분위기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41. ‘한 장정’이 ㉠을 인용하여 전하려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은 목표에 집착하다가 큰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탓하고자 한다.
- ② 의로운 목표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려는 위선을 탓하고자 한다.
- ③ 목표는 설정하지 않으면서 선부르게 행동만 앞서는 무모함을 탓하고자 한다.
- ④ 목표는 거창하면서도 성취할 방법은 잘 알지 못하는 미숙함을 탓하고자 한다.
- ⑤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나태함을 탓하고자 한다.

42.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가의 인식을 정리해 보자.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오염에 대한 생태주의의 인식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생태주의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등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회 생태주의는 환경오염이 자연의 훼손이면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재정립이 사회적 담론에 대한 비판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한 사회의 지배 담론은 특정 가치나 필요에 따라 자연의 훼손을 당연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생태주의는 근대화, 경제 개발, 권위주의, 안보 위기 등 생태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촉구한다.

- ① 공장의 오염 물질이 ‘새와 물고기’뿐 아니라 어민의 삶도 위협하게 한다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을 자연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장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공장 관계자가 병국을 ‘상습범’으로 폄하하며 ‘국민 소득 1천 달러 달성’을 언급하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의 해결 노력이 경제 개발 담론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공장 관계자가 환경오염의 피해를 무시하며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병국이 ‘공해 문제’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아비 된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고 ‘나’가 말하는 설정에서, 권위주의 담론이 자연의 훼손을 당연시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새 떼를 조사하다 통제 구역을 넘은 병국을 두고 윤 소령이 ‘안보의 확립’을 강조하는 설정에서, 환경오염의 해결 노력이 안보 위기 담론과 부딪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이때 시간과 공간은 화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잇는 회상 형식이나, 상징적 공간과 화자가 처한 현실의 동일시 등을 통해 현재 시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면에서 떠올린 것이든, ㉠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 이미지화를 통해 화자가 직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져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시적 장치로 구조화된다.

(나)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북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땀겨졌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애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 김기림, 「길」 -

(다)

한밤중에 혼자
깨어 있으면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다

㉢ 간간이
늑골 사이로
추위가 몰려온다

등산도 하지 않고
땀 한번 안 흘리고
내 속에서 마주치는
한계령 바람 소리

다 불어버려
갈 곳이 없다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한다

언 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다.

- 천양희, 「한계」 -

43. ㉠을 중심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이 형성하는 시적 분위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주변 상황의 변화를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동적 대상을 정적 대상으로 수용하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내면의 괴로움에 맞서려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화자가 자신이 느낀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을 드러낸다.
- ③ ㉡와 ㉢는 화자에게 고통을 더할 새로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음을 드러낸다.
- ④ ㉡와 ㉢는 화자가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 반응과 연결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는 화자의 아픔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는 화자의 아픔이 끊임이 없이 이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는 ‘어머니의 상여’에 대한 경험을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떠올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회상 형식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과 이어지는 과거의 상실감을 그려내는군.
- ② (나)는 ‘조약돌처럼’ 잃어버린 대상을 ‘동구 밖’에서 여전히 ‘기다려 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에 함께했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현재 시점으로 표현하는군.
- ③ (다)는 ‘머물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을 ‘눈보라 속에 놓인’ 모습으로 표현하여, 현재 화자가 처한 한계 상황을 형상화하는군.
- ④ (나)는 ‘까마귀’와 ‘두루미’가 떠난 ‘강가’에서 계절이 바뀔을 통해, (다)는 ‘세상’에서 ‘바람 소리’와 마주침을 통해 상징적 공간이 현재 화자가 처한 현실과 동일시됨을 보여 주는군.
- ⑤ (나)는 떠나간 대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됨을 통해, (다)는 ‘한밤중’ 깨어 있는 상황이 ‘내 속’에서 떠올린 ‘한계령’으로 연결됨을 통해 화자가 직면한 현재를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